

행정고시 합격수기

김유림

(2021년도 입법고시 합격자/행정고시 일반행정(전국) 직렬 합격자)

“안녕하세요. 흔히들 고시공부를 2년 이상의 장기 레이스라고 합니다. 장기 레이스에서는 시기별로 적절한 전략을 짜고, 쉽게 지치지 않도록 페이스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혼자 헤쳐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는 것은 레이스를 완주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험기간 전반을 공공인재원에서 보내면서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경우 안암이 아닌 신림의 고시촌에서 공부했음에도 공공인재원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고시에 진입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공공인재원의 ‘합격생 상담시스템’이었습니다. 5급 공채의 경우 시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사설학원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인재원에는 합격생과 수험생을 연결해주는 상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수험생이 여러 고민에 직면할 때마다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 초심자였던 저는 공부장소부터 수험서를 정하는 것까지 합격생 선배와 상담했고, 결론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어 첫 기틀을 탄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의비용과 수험교재, 2차 답안지 등 ‘수험생활에 필요한 용품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금전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고시의 경우 과목별로 수강해야 하는 강의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었고, 내부서고에 비치된 여러 수험서들을 대출할 수 있어서 원거리에 살더라도 다양한 교재를 활용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수월하게 시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공공인재원에서 고시생활의 첫 기반을 잘 다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 1년 이상 공부하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는, 보다 합격에 직결된 도움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감사하게 생각했던 지원은 ‘합격생 답안첨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차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답안작성입니다. 본인 답안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자신만의 답안작성을 체화하는 것이 합격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혼자 공부할 경우 답안을 첨삭받기 어렵고, 학원수업을 수강하더라도 대규모로 진행되는 학원시스템 상 검증되지 않은 채점자의 질 낮은 첨삭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공인재원 소속 합격생 선배들의 꼼꼼하고 전문적인 답안첨삭은 그 자체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3순환 진도에 맞추어 공공인재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모의고사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교수님들께서 출제해주셨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가 기출과 유사했을 뿐 아니라 1:1 답안첨삭까지 받을 수 있었고, 강평시간에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여쭙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2차공부와 관련된 공공인재원의 체계적인 지원은 깊이 있는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험생활을 마치며 오롯이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겠지만, 주변인들의 도움 없이는 시험을 무사히 마무리하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공인재원에는 애정을 가지고 살피주시는 담당교수님들, 각종 실무를 담당하시는 조교님들,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는 합격생 선배님들, 그리고 함께 열심히 공부했던 많은 실원분들이 모두 모여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공직의 꿈을 품으신 행정학과 학우분들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